

선사시대 바위그림의 유형 변화와 사회경제적 의미

- 울산 반구대 유적을 중심으로 -

The Style Transition and Socio-economic Meaning of Prehistoric Rock Art

-In case of Bangu-dae site in Ulsan-

이 상 목*

I. 서론

선사시대 바위그림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초 울산 천전리와 대곡리 반구대, 고령 양전동 유적이 발견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관련 유적은 20여 곳으로 유적의 입지조건과 내용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유적들에서 발견된 그림의 주제와 제작시대에 따라 크게 수렵채집 단계와 농경 단계의 것으로 나뉘볼 수 있다. 반구대 유적을 제외하고는 그림들만으로 생업까지 추론할 수 있는 뚜렷한 단서가 없지만, 그림이 발견된 지식묘의 상석¹⁾ 또는 입석²⁾ 그리고 이들 유적의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적석³⁾ 또는 위석 등의 입지적 맥락이나 그림의 내용과 출토유물의 형태⁴⁾가 동일성으로 개략적인 시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본격적인 농경의 개시연대와 전환 틀에 대해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바위그림을 통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수렵채집 경제단계는 신석기 중·말기까지 이어지고 농경 경제단계는 청동기(무문토기출현)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고고학적 층위나 실제 생업 이행과정은 이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점진적으로 이뤄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위그림의 내용이 단순히 생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당시의 공동체 상징물로 사회구성원들의 공통된(지배적인) 정신적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농업 경제 단계를 단순히 매장유구에서 출토된 곡물이나 가축의 유체의 존재 여부보다는 이들 순화(domestication) 자원이 당시 사회집단에서 생업의 지배적인 역할을 점하고 있는 상태로 가정하였다.⁵⁾

*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강사

1) 포항 인비리, 함안 도항리, 여수 오림동, 밀양 신안리 II지구 등

2) 대구 진천동 입석

3) 밀양 살내 1호 지식묘, 밀양 신안 II지구 등

4) 마제석검이 표현된 포항 인비리, 함안 도항리, 여수 오림동, 밀양 살내 1호 지식묘 등

5) 기술-생물학적 차원에서의 식량자원의 순화라는 기준(reference) 자체가 대체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야생에서 순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점진적인 단계가 있다. 대부분 수렵채집민 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울산 대곡리 반구대 유적에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수렵채집어로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는 사실적인 수렵 어로장면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유적에 새겨진 그림들의 새김법과 중복관계를 고찰하여 유형의 선후관계(상대적 편년)를 추출하고 유형들 간의 주제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유형간에 시간적 폭을 정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고고학적 유적과 교환경자료를 검토해 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유적 조성시기와 당시 공동체의 관념의 변화에 따른 가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유적의 입지와 환경

대곡리 반구대 유적이 위치한 곳은 태화강 지류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일원 대곡천변에 연립한 절벽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울산만에서 북서쪽으로 약 20여 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대곡천 일대는 울산지역에서는 비교적 깊은 골짜기에 해당하며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경관이 매우 특이한 곳이다. 이곳에서 2km 상류에는 천전리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계곡의 입구를 중심으로 보면 동남쪽으로는 태화강하류의 너른 충적평야가 해안까지 이어지고 반대로 서쪽으로는 가지산(1,239m), 간월산(1,083m), 고현산(1,032m) 등 일명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고산지대가 이어지고 있다. 유적은 해안과 내륙의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계곡 깊은 곳에 입지하고 있다.

울산만에 대한 고(古)환경 연구에 따르면, 과거 울산만은 6,000~5,000BP에 해진극상기에 도달하였고 태화강 중류(입암리, 유적과 직선거리 5km이내)까지 확장하였다고 한다. 이때 고굴화만(古屈火灣)의 폭은 약 300~500m에 달하였고 이후 하천퇴적물의 유입으로 고굴화만과 고울산만은 차차 매적되면서 정선(汀線)은 차차 후퇴하기 시작하였고 3,000BP 경에는 고굴화만은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황상일·윤순옥, 2000). 이를 보면 유적 제작 당시의 사람들이 활동하던 주변의 환경이 지금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업활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순화는 아니겠지만 자연 상태의 야생자원의 재생산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농경사회에서도 야생자원 개발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도 아니다(Testart,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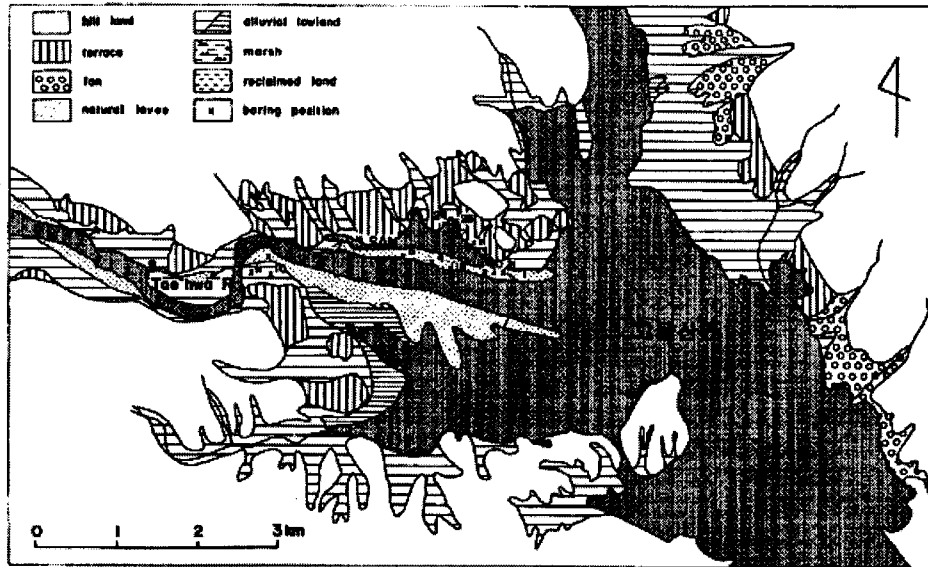


그림 1. 3,000BP 경의 태화강하류의 지형경관(황상일·윤순옥, 2000)

III. 1. 새김법과 제작과정

유적에서 발견되는 그림은 모두 231점으로 주제에 따라 인물, 동물, 도구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주제미상으로 나눌 수 있다. 동물그림이 전체그림에서 가장 큰 비율(146점, 63.2%)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주제미상(61점, 26.4%), 도구(13점, 5.6%), 인물(11점, 4.8%)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의 동정과 해석은 이미 보고된바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주로 새김법과 유형(style)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상대적 편년과 내용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바위에 새기는 방법은 크게 쪼기, 긋기, 돌려 파기, 갈기가 있다. 반구대 유적에서는 이들 기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유적에서는 암각화의 제작과정과 기법을 추론할 수 있는 그림들도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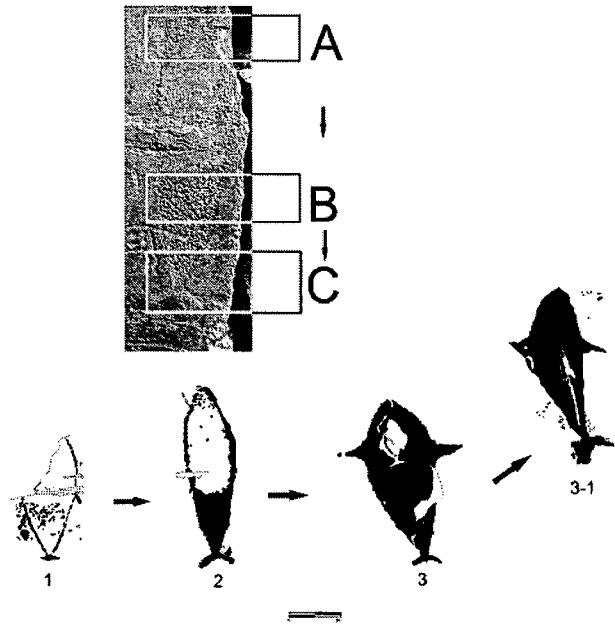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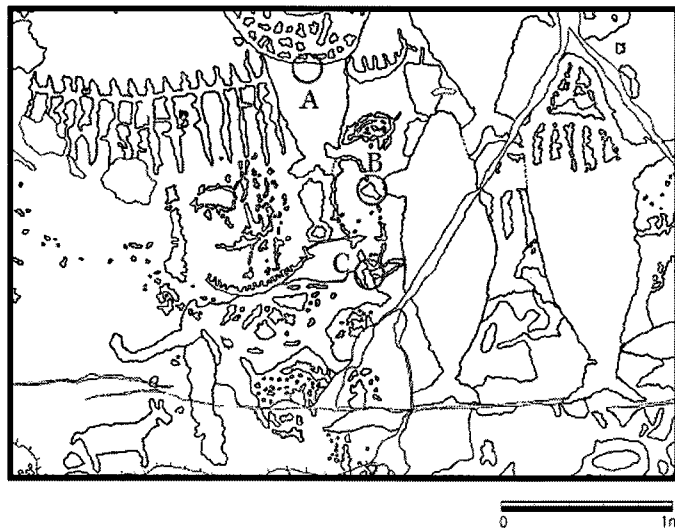


그림 2. 새김법과 제작과정



A = 유형 III > 유형 II

B = 유형 II > 유형 I

C = 유형 III > 유형 I

* 유형 III > 유형 II > 유형 I

그림 3. 유형별 중복과 선후관계

그림 2의 상단의 그림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는 고래그림이다. 그림의 상단 부분(A)에서는 각흔(刻痕)의 간격이 벌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도 비교적 얇은 상태이며 윤곽선만 쏘 상태로 남아 있다. 몸체의 중하단 부분(B)은 내부가 모두 쏘 상태에 있으며 각흔의 크기가 크고 치밀하지 못한 편이다. 꼬리부분(C)은 전체를 치밀하게 쏘 상태이며 각흔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본다면 각흔의 치밀도, 간격, 깊이 차이는 동일한 시기와 도구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림의 제작과정이 먼저 윤곽선을 듬성듬성 쏘 다음 특정 부분에서 차츰 정밀하게 완성 해나간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다른 그림들과 대조해 보면 먼저 윤곽선만 쏘 상태로 남아있는 단계(1), 아랫부분부터 정밀하게 쏘아가는 과정(2), 전체를 쏘아가면서 특정부위는 자연면을 그대로 살려 양각으로 조각하는 경우(3) 또는 양각부분의 외형을 다시 굵기로 손질한 경우(3-1)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새김법이나 각흔의 형태만으로 유형분류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새김법 뿐만 아니라 표현기법을 함께 고려해 유형을 크게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유형 I. 은 주로 각흔의 크기가 매우 작고, 가늘며, 깊이는 매우 얇으며, 각흔의 간격도 큰 상태로 윤곽선을 쏘 그림, 유형 II. 는 주로 쏘아서 그린 그림에는 양각과 굵기 수법도 발견되며, 외곽선에 대한 마무리 처리를 한 주로 형상의 전체를 쏘아서 그림, 유형 III. 는 각흔의 밀도가 치밀하며, 깊이도 일정하고 주로 외형만을 쏘아서 새긴 그림, 유형 IV. 는 갈기 수법을 사용하여 단면이 U자 형태의 그림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그림의 선후관계는 유형들 간의 중복상태와 덧그림으로 판단해볼 때 I → II → III → IV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유형간의 정확한 시간 폭은 알 수 없지만 시간적 선후관계를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그림 3).

III. 유형별 내용과 특징

전체그림에서 유형 II 는 6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유형 I 이 19.4%, 유형 III 이 14.7%, 유형 IV은 불과 0.8%로 2점이 나타난다. 유형별 그림의 주제는 I형은 주제미상 48.5%, 동물그림 종류미상 24.4% 기타 13.3%, 바다동물 8.9%, 육지동물 4.4%를 포함하고 있다. 주제미상과 동물그림 종류미상의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가장 오래전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림의 크기가 매우 작고 각흔의 깊이도 얇아 자연적 마모에 따른 보존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또 IV형의 경우 불과 그림이 2점(수염고래와 멧돼지)이 다른 그림들 위에 덧새겨져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II형과 III형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형 II의 주제별 비율은 고래류를 포함한 바다동물이 34.0%, 주제미상 22.7%, 육지동물 21.1%, 동물종류 미상 12.7%, 기타 9.3%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유형 III는 육지동물 41.2%, 동물종류 미상 23.5%, 주제미상 14.7%, 바다동물 8.8%, 기타 11.6%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유형간의 가장 큰 차이는 II형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류가 III형 단계에서는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오히려 II형에서 크지 않은 육식목 동물그림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림의 전체적인 성격도 II →III에서 바다동물(34.0% → 8.8%)로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오히려 육지동물(21.1%→41.2%)로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간의 시간적 간격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유형 II의 세대와 유형 III의 세대 간에 어떤 관념의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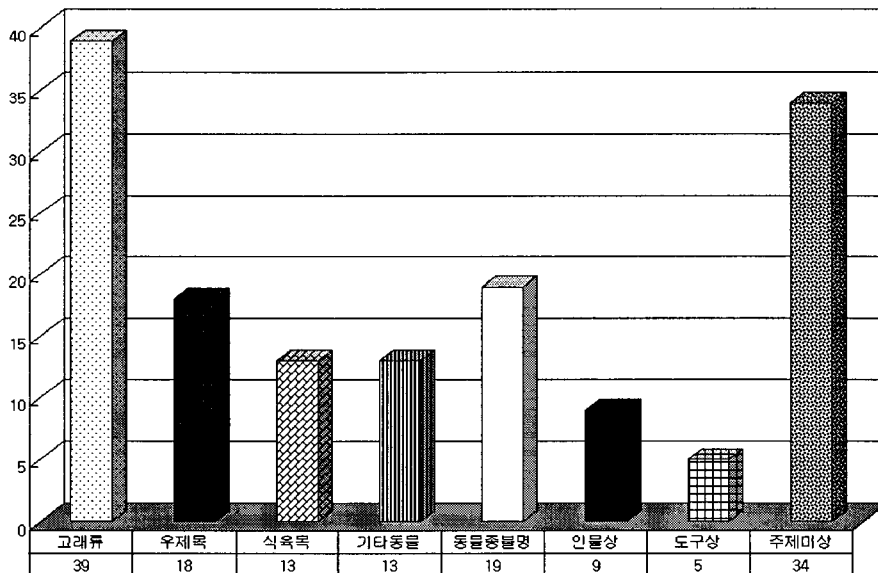


표 1. 유형 II. 주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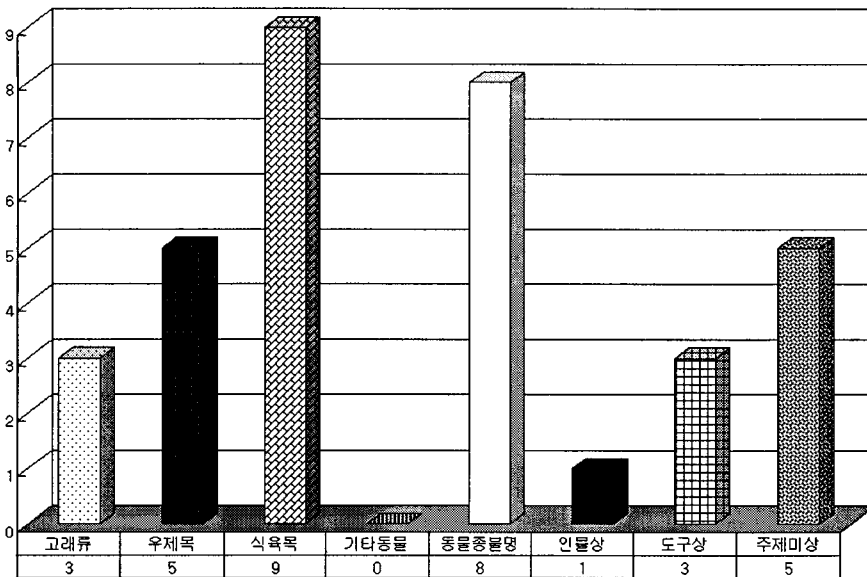


표 2. 유형 III. 주제별 분포

이와 같은 고래의 비중의 감소는 신석기 패총유적에서도 나타난다. 동삼동 패총의 경우 초기(BC 5,000)에서 말기(BC 2,290)로 갈수록 동물 유체에서 고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BC 3,340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슴류와 물개류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양상은 동삼동 패총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신석기 패총 유적들에서도 신석기 후·만기로 갈수록 해양자원의 비중이 차츰 육상자원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를 볼 때 반구대 유적의 II형 → III형 사이의 변환은 어느 정도 신석기 중·후기의 생업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유적에 나타나는 동물그림 그자체가 실제 수렵을 통해서 획득된 식량자원을 비중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공동체 내의 이와 같은 상징의 변화(고래→육식동물)는 사회경제구조의 물적 토대를 이루는 생계, 생업, 생태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IV. 결론에 대신하여

반구대 유적의 유형 간(II→III)에 나타나는 주제의 변화를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 1) 유적이 입지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고환경은 6,000~5,000BP 고울산만이 최대 로 확장되었고 이후 점차 축소되면서 3,000BP 경에는 고굴화만이 소멸된 시기 이다(황상일·윤순옥, 2000). 이와 같은 주변 환경의 변화는 해안을 중심으로 어로 생활을 하는 집단에게는 생업 공간의 축소를 농경 집단에게는 생업공간의 확대를 의미한다.
- 2) 울산지역의 화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2,300BP 경에는 벼과 화분의 증가와 농 경 활동에 따른 채벌에 따른 식생의 변화가 나타난다(조화룡, 1979; 황상일·윤 순옥, 2000). 이는 변화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생업활동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으 며, 최근 조사된 울산지역의 농경관련 유적들도 대략 2,700~ 2000BP 사이에 해 당하는 밭과 논 유구가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적어도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농경 경제단계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반구대 유적의 하안으로 설정될 수 있다.
- 3) 수렵어로집단은 계절별 식량자원 획득을 위한 분산과 정착생활(겨울-포경시 기)을 하였으며, 정착생활은 보다 한 장소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식량자원이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한 식량자원의 개발, 교역의 확대, 새로운 생계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 4) 주변의 새로운 생업방식의 집단(농경민)의 출현은 기존의 수렵어로민 집단의 긴장을 초래하거나 이들과 교역을 통한 공존 또는 동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종철, 2001,
「우리나라 선사~고대 논 밭 유구」, 『한국농경문화의 형성』, 제 25회 고고학대회
- 경북대학교박물관, 2000,
대구 진천동 선사유적
- 김종찬 외, 2002,
「울산 세죽 유적의 절대연대」, 『한국신석기시대 환경과 생업』, 동국대학교매장문화 재연구소 제1회 학술회의
- 동국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울산 세죽 패총 도록」
- 문명대 외, 1984,
「반구대; 울주암벽조각」, 동국대학교

- 신숙정, 1994,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신석기 연구』, 학연문화사
- 안덕임, 2001,
「탄소동위원소분석을 이용한 대죽리패총 조개채집의 계절성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2』, 한국 신석기연구회
- 안재호, 2000,
「한국농경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43』. 한국고고학회
- 울산대학교박물관, 2002,
『울산 반구대 암각화』, 울산대학교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6집
- 이상길, 2002,
「남부지방 초기농경의 현단계-유구를 중심으로-」, 『한일초기농경 비교연구』, 한일공동심포지엄 및 현지검토회
- 이상목, 2004
「울산 대곡리 반구대 선사유적의 동물그림」, 『한국고고학보 52』, 한국고고학회
- 이준정, 2001,
「수렵·채집경제에서 농경으로의 전이과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영남고고학 28』. 영남고고학회
- 조화룡, 1987,
『한국의 층적평야』, 교학연구사
- 최종혁, 2000,
「신석기시대 남해안지역 토기편년에 대한 검토」, 『고고역사학지 16』, 동아대학교박물관
- 하인수, 2001,
「동삼동 패총 1호 주거지 출토 식물유체」, 『신석기시대의 패총과 식물유체』, 제 4회 한일신석기문화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 한영희, 1993,
「신석기시대 패총」, 『한국고고학보 29』, 한국고고학회
- 황상일·윤순옥, 2000,
「울산 태화강 중·하류부의 Holocene 자연환경과 선사인의 생활 변화」, 『한국고고학보 43』, 한국고고학회
- _____, 2002,
「울산시 황성동 세죽 해안의 홀로센 중기 환경변화와 인간생활」, 『한국고고학보 35』, 한국고고학회
- 황창환, 2002,

- 「울산 황성동 세죽유적」, 「한국신석기시대 환경과 생업」,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제1회 학술회의
- CAMPS G., 1998,
L'Homme préhistorique et la mer, Editions du CTHS, Paris.
- CREMANDES M., 1997,
La représentation des variations saisonnières dans l'art paléolithique, *«L'Anthropologie»*, Tome 101, n°1, Paris, p.36-82.
- CHILDE, V.G.,1962,
L'Europe préhistorique Les premières sociétés européennes, (traduit de l'anglais par S.M. Guillemin), Payot, Paris.
- CLEYET-M. J-J., 1990,
La Préhistoire de la pêche, Éditions Errance, Paris.
- HARRISON, R., 2000,
La chasse à la baleine, *Baleine dauphins et marsouins* (Ed. Kenneth Norris), Nation Géographie, Paris, pp.22-41.
- KARLEN, W., 1991,
Les variations climatiques de courte durée pendant l'Holocène, *«L'Anthropologie»*, Tome 95, n°4, Paris, p.743-752.
- LEE, Sang-Mog.,2002,
L'art rupestre préhistorique en Corée du sud, *INORA: International Newsletter on Rock Art N°34*, Foix, pp.23-29.
- _____,2002,
Les artistes pecheurs du néolithique Corée du sud, 「Archéologia」 N°392, Paris.
- MASSET C., 1999,
Mégalithisme, sociétés, aspects démographiques, *«Mégalithisme»* [séminaire du Collège de France], Éd. Errance, Paris, pp.33-46.
- POPLIN F., 1983,
La dent de cachalot sculptée du Mas d'Azil, avec remarques sur les autres restes de cétacés de la préhistoire français, *Mémoire société préhistoire*, Vol 16, Paris, pp.81-94.
- ROBINEAU, D.,2001,
Sur une gravure de cétacé de la grotte de la vache, 「Société préhistorique Ariège-pyrénées」 Tome LVI, , Ariège.
- SAUVET, G.,1993,
Thématique de l'art pariétal: Introduction, *L'art pariétal paléolithique: Techniques et méthodes d'étude*, Ed du CTHS, Paris, p.83-86.
- TESTART, A., 1982,
Les Chasseurs-cueilleurs ou l'origine des inégalités, Société d'Ethnographie, Paris.
- VIALOU, D., 1982,
L'art préhistoire question d'interprétation, In *Les grottes ornées*, *Revue des Monuments Historique*, n°118, Nov-Dec.1981., Imp. La Fayette, Paris, pp.75-83.